

# 델타 변이 주간 검출률 33.9% 일주일 전 비해 10.6%p 증가

### 최근 한 주 국내 1348.7명...비수도권 확산 뚜렷

최근 한 주간 국내 델타형(인도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33.9%포인트 이상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최근 한 주간 국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47.1%로 전주 대비 10.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형 검출률은 33.9%로 전주 대비 10.6%포인트 증가했다.

델타형 바이러스 검출률은 6월 셋째 주부터 주 단위로 2.5%→3.3%→9.9%→23.3%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 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는 1348.7명으로 직전 한주 평균 992.4명 대비 35.9%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확산세가 뚜렷하게 늘어난 상황이다.

수도권의 직전 한 주간 환자 발생은 하루 평균 799.0명(전체 대비 80.5%)에서 최근 한 주간 990.4명(전체 대비 73.4%)으로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직전 한주 환자 발생이 하루 평균 193.4명(전체 대비

19.5%)에서 최근 한 주간 358.3명(전체 대비 26.6%)으로 늘었다.

해의 유입의 경우 하루 평균 48.1명(총 337명)으로 전주 대비(62명) 28% 감소했다.

주간 위중증 환자 규모를 보면 159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7명이다. 다만 치명률은 ▲4월 17일 1.58% ▲5월 17일 1.44% ▲6월 17일 1.33% ▲7월 17일 1.16%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직전 한주 대비 8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전주(1.9명)보다 증가한 2.6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대 5.0명(37.6% 증가) ▲30대 3.4명(40.2%) ▲40대 2.9명(28.4%) ▲50대 2.6명(30.9%) ▲60대 1.1명(39.2%)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10대 역시 2.8명으로 전주 대비 32.2% 증가했다.

최근 4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지인·직장 등 소규모 접촉감염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 비중은 ▲6월 넷째주 39.7%(1485명) ▲6월 다섯째주 41.3%(2017명) ▲7월 첫

째주 42.3%(3124명) ▲7월 둘째주 48.1%(4706명)를 기록하고 있다.

병원·요양시설 등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도 6월 넷째주 24명에서 ▲6월 다섯째주 0명 ▲7월 첫째주 45명 ▲7월 둘째주 19명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집단발생 상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주점 등 유흥시설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 ▲군 훈련소 관련에서의 발생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신규 집단감염은 의료기관과 공장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잇따랐다.

신규 집단감염 34건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음식점·주점·실내체육시설 등) 9건 ▲사업장(직장 등) 10건 ▲교육시설(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9건, ▲사회복지시설 1건 ▲의료기관·가족·지인모임·종교시설 각 1건 ▲군 훈련소 1건 ▲미군 부대 1건 등이다.

주요 전파요인은 대부분 밀폐·밀집 환경에서의 불충분한 환기, 장시간 체류 등으로 파악된 상태다.

방대본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이행, 마스크 착용,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과 방역 수칙을 충실히 따라달라"며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 모임,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중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

의무화와 공공병원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를 발표하고 비급여 신고

### 경찰, 민주노총 집회 25명 내·수사... "위원장 압수수색"

#### 경찰, 2명 휴대폰 압수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최한 7·3 노동자대회 수사와 관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관련" 기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압수수색 대상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참석자 25명을 내·수사 중이며, 이중 23명은 입건했다고 전했다. 채증자료 분석에 의해 입건자는 지난주 6명에서 17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나머지 내사자 2명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 등에 대해

서) 관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를 주도했는지, 단순히 참가했는지에 따라 수사 대상에 혐의를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집회 주최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받는 반면, 주요 참가자로 분류될 경우 집시법위반 혐의가 제외된 일반교통방해죄·감염병예방법 혐의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50대 접종에 모더나 외 화이자도 사용

#### 백신 수급상황 탄력 대응...같은 mRNA 계열 활용



당초 모더나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었던 50대 연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화이자 백신이 추가 활용된다.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50대 연령층의 접종에 모더나 백신 외에 화이자 백신도 추가해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더나사에서 통보한 7월 백신 배정 물량이 7월 말에 집중돼 있어, 백신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50대 접종을 안정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같은 mRNA 계열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추가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53~54세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50~52세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된다.

2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는 50~54세 연령층 전체가 예약할 수 있다.

추진단은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 기간 중에는 조기 마감없이 예약할 수 있다"며 "사전예약 개통 직후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접속하여 사전예약 누리집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통 직후 시간대를 피해 예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장날 사람 팍찬 강진버스, 충돌후 넘어져 42명 부상

#### 화물차와 충돌한 버스 전도, 크고 작은 부상



19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강진군 성전면 한 교차로에서 군내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한 뒤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승객 등 3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전남소방 제공)

강진의 한 교차로에서 읍내 장날을 맞아 승객을 가득 태운 군내 버스가 화물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

로 42명이 다쳤다. 19일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께 강진군 성전면

한 교차로에서 A(58)씨가 운행하는 군내버스가 B(86)씨의 3.5t 화물차와 충돌한 뒤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기사 A씨와 승객, 화물차 운전자 B씨 등 42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버스는 입석을 제외한 16인승이지만, 읍내 장날을 맞아 40여 명이 뺑뺑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인 점을 토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군내버스 승객 정원을 초과한 점이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